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짜수형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망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
 - ②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 ③ 큰 것을 얻으려면 작은 것은 버려야 한다.
 - ④ 주어진 기회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한다.
2. (물음) 대화 내용으로 보아 음악 감상회를 알리는 포스터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악보로 쓴 한 편의 희곡
- 선율의 고조와 이완이 즐거리가 된 드뷔시의 화성
 - ② 소리로 빛은 색채의 향연
- 화성을 철학으로 승화시킨 드뷔시의 음악 세계
 - ③ 분명한 맺음과 끊음의 미학
- 현대 음악의 새 지평을 제시한 드뷔시의 메시지
 - ④ 전통 음악의 굳건한 수호자
- 가장 독일적인 소리로 만들어 낸 드뷔시의 역작
 - ⑤ 익숙함 너머의 새로운 상상력
- 자유로움으로 옛 틀을 벗어 버린 드뷔시의 선율

3. (물음) '대일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타원 모양으로 보인다.
- ② 봄과 가을에 잘 볼 수 있다.
- ③ 햇빛의 산란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
- ④ 밝은 별들 사이에서는 잘 볼 수가 없다.
- ⑤ 우주 탐사선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여성 토론자의 발언으로 볼 때, 정책 담당자가 이전에 말했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영화를 통해 수돗물의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 ② 수돗물 사업의 전문성을 위해 기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③ 종합적인 대책 마련으로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 ④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돗물 사업을 민간 기업에 맡겨야 한다.
 - ⑤ 거대한 규모의 사업을 민간 기업이 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5. (물음) 여성 토론자의 말하기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 ③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사회적 통념을 근거로 논박하고 있다.
 - ④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반론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보기>를 바탕으로 ‘학습’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등산 배낭을 꾸릴 때에는 먼저 목적지와 여행 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것을 빼놓아서는 안 되지만, 배낭의 무게는 자기 체중의 $\frac{1}{3}$ 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낭에 물건들을 배치할 때에는 배낭의 무게가 등 전체에 골고루 분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벼운 물건은 아래에, 무거운 물건은 위에 넣어야 체감 하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 ①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부를 몰아서 하지 않는다.
- ② 지나치게 욕심을 내어 학습량을 많이 잡지 않는다.
- ③ 여러 학습 방법을 비교하여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다.
- ④ 어려운 공부와 쉬운 공부가 적절히 안배되도록 한다.
- ⑤ 목표와 주어진 시간을 고려하여 공부할 내용을 정한다.

7. <보기>에 따라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주 제 문: 체계적인 어린이 건강 증진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예상 독자: 어린이 후생 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

독자 분석	○어린이 건강에 관심은 있지만, 어린이 건강이 미래 사회를 좌우한다는 적극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어린이 건강 증진 방안이 체계적이지 못하다.
전략 수립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 건강이 가지는 미래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환기한다. ①
자료 수집	○국내·외의 관련 통계 자료 및 제도 현황을 수집한다. ② ○어린이 건강이 미래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례를 수집한다. ○어린이 보육 기관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를 조사한다. ③
내용 선정	○어린이 건강에 관련된 주요 지표가 악화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④ ○세부 방안으로 음식물 안전 관리, 체력 증진,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제시한다. ⑤ ○어린이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체계 구축에 필요한 예산 및 전문 인력 확보를 요구한다.
조직	○문제 제기, 문제점 분석, 개선 방안 마련, 실행 촉구의 순서로 논지를 전개한다.

8. 지역의 명승고적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할 때, <보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것은?

<보 기>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 역사적 사실과 관련지을 것
- 방문을 완곡하게 권유할 것

- ① ○○고분 - 터미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큰 무덤 몇 기가 있습니다. 천 년 전에 이곳에서 살았던 옛사람들이 묻힌 곳입니다. 오가는 여정 중에 잠시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 ② ○○지 - 초여름 아침이면 물안개가 전설처럼 피어오르는 곳. 수면 위의 연꽃들은 제 몸을 감춥니다. 여러분도 연인과 연못가를 거닐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 ③ ○○정 - 망망한 푸른 바다를 마주하는 큰 바위 위에 망부석인 양 서 있습니다. 오백 년 전 이국으로 떠난 이들의 피붙이들이 그리움으로 만든 정자입니다. 이곳의 정취를 느끼시려면 꼭 오십시오.
- ④ ○○산 - 장엄하게 홀로 서서 우리 고장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오랑캐와 싸웠던 의병들의 흔적이 산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산의 정상에서 자녀들에게 조상들의 기개를 일러 주지 않으시렵니까?
- ⑤ ○○사 - 깊은 소나무 숲을 치맛자락 삼아 몸을 감싸고 있는 절. 앞마당에 앉아 산바람에 울리는 은은한 풍경 소리와 상큼한 솔잎 향기를 즐겨 보십시오. 빌딩 숲에서 지쳐 버린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정화될 것입니다.

[9~10] ‘환경 영향 평가 제도’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고 서론을 써 보았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9. 개요의 초고를 작성하고 세 가지 글감을 접하였다. 글감을 모두 활용하여 개요를 보완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개요>	<글감>
<p>주제: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p> <p>I. 서론</p> <p>II. 본론</p> <p>1. 현황</p> <p>2. 문제점</p> <p>가. 제도상의 문제</p> <p>나. 운영상의 문제</p> <p>3. 개선 방안</p> <p>가. 제도의 개선 방안</p> <p>나. 운영의 개선 방안</p> <p>III. 결론</p> <p>- 환경 영향 평가의 내실화 촉구</p>	<p>ㄱ.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은 개발 사업을 승인하는 정부 기관이 환경 영향 평가를 직접 수행한다.</p> <p>ㄴ. 우리나라에서는 개발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정부 기관에 보고한다.</p> <p>ㄷ. 우리나라에서 개발 사업자가 왜곡된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하여 사업을 승인받은 사례도 있다.</p>

- ① ‘II-1’에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환경 영향 평가 제도의 성과를 제시한다.
- ② ‘II-2-가’에 ‘환경 영향 평가의 객관성 부족’이라는 하위 항목을 설정한다.
- ③ ‘II-2-나’에 ‘환경 개선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 소홀’이라는 하위 항목을 설정한다.
- ④ ‘II-3-나’에 ‘엄격한 환경 영향 평가 기준 마련’이라는 하위 항목을 설정한다.
- ⑤ ‘III’에 ‘선진국 수준의 환경오염 처리 시설 의무화 강조’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10. <보기>는 서론의 일부이다. 고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각종 개발 사업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여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 마련한다. 개발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 자연 생태계가 파괴됨에 따라 오염 물질의 처리 시설 설치와 같은 사후 대책만으로는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이 ㉢ 궁색해졌다. 그리하여 각종 개발 계획의 추진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 영향 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 그러므로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 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등 개발과 보전 사이의 균형추 역할을 수행해 왔다. ㉤ 따라서 신도시 개발 사업은 사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 영향 평가 제도는 제도나 운영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 ① ㉠은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마련하는 수단이다’로 고쳐야겠어.
- ② ㉡은 문장 내의 연결 관계가 어색하므로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고쳐야겠어.
- ③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어려워졌다’로 바꿔야겠어.
- ④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하므로 ‘그 결과’로 고쳐야겠어.
- ⑤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어.

11.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두 단어의 의미를 한 단어에 담아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그는 손으로 방문을 세계 밀었다. (⇒ 밀쳤다)
 ○ 어제는 서쪽 하늘이 몹시 불었다. (⇒ 불디불었다)

- ① 그 집은 매우 크다. (⇒ 커다랗다)
- ② 그는 건강을 다시 찾았다. (⇒ 되찾았다)
- ③ 그는 남의 말을 몰래 들었다. (⇒ 엿들었다)
- ④ 그는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뎠다. (⇒ 헛디뎠다)
- ⑤ 그는 오늘 친구와 심하게 싸웠다. (⇒ 싸움질했다)

12. <보기>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맞춤법 규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먹이, 믿음 등.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목거리(목이 아픈 병), 노름 등.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마중, 무덤 등.

【맞춤법 규정 제19항 해설】
 ○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나,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단어는 밝혀 적지 않는다.
 ○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 ① ‘먹이’를 ‘머기’로 적지 않는 것을 보니 ‘-이’가 널리 쓰이는 접미사겠군.
- ② ‘목거리’와 달리 ‘목걸이(장신구)’는 어간의 뜻과 떨어지지 않은 예로군.
- ③ ‘마중’을 ‘맛옹’으로 적지 않는 것을 보니 ‘-옹’이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겠군.
- ④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예로 ‘같이’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었지만 어간의 뜻과 떨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예로 ‘마개’를 추가할 수 있겠군.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을로 어딜 가라는 ㉠ 슬픈 신호나

㉡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思念)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

(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다) 평생에 원하는 것이 다만 충효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나 다를쏘냐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 년을 허둥대노라 <제1수>

계교(計較)*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해도 이루지 못할까 하는 뜻을
㉦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제2수>

비록 못 이뤄도 임천(林泉)이 좋으니라
무심어조(無心魚鳥)는 절로 한가하나니
조만간 세사(世事) 잊고 너를 좇으려 하노라 <제3수>

강호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어찌랴 이러구러 이 몸이 어찌할꼬
행도(行道)도 어렵고 은둔처도 정하지 않았네
언제나 이 뜻 결단하여 내 즐기는 바 좇을 것인가 <제5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

* 계교: 서로 견주어 살펴봄.
* 부급동남: 이리저리 공부하러 감.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에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자 한다.
 - ② (가), (다)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확신이 나타나 있다.
 - ③ (나), (다)에는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대결 의지가 나타나 있다.
 - ④ (가), (나),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삶에 대한 화자의 고뇌가 나타나 있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조적 어휘를 반복하여 공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 ③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역설과 반어를 통해 화자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와 달리 상승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 ② ㉢는 ㉡와 달리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③ ㉡, ㉢ 모두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 ㉢ 모두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모두 시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6. (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시어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서정적 자아는 세계를 내면화한다. 이런 작용으로 서정시에서 자아는 상상적으로 세계와 하나가 된다. 그렇지만 근대 이후의 문명사회에서 자아와 세계의 조화나 통일은 달성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근대 이후의 서정시에서는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들이 자주 나타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욕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18.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연시조는 단순히 평시조 몇 작품을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체로 각 작품들이 일관된 체계에 따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연시조는 질서 정연한 구성을 보이게 마련이다.

- ① 제1수는 시상 전개에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 ② 제2수의 '계교'는 제1수의 '충효'와 관련되어 있다.
- ③ 제3수의 '임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
- ④ 제4수는 제2수와 제3수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
- ⑤ 제5수는 제4수의 내용을 변주하여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촉매는 마법의 돌이라고도 불린다. 화학 공정을 통하여 저렴하고 풍부한 원료로부터 원하는 물질을 제조하고자 할 때,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하여 마치 마술처럼 원하는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 돌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 대전 직전에 수소와 질소로부터 암모니아의 합성을 가능하게 하여 식량 증산에 크게 기여하였던 철 촉매에서부터 최근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사용되는 백금 촉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촉매가 의식주, 에너지,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의 핵심 기술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공업용 촉매 개발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다가 요행히 촉매를 발견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촉매가 보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촉매 설계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표면 화학 기술과 촉매 공학의 발전으로 가능해졌다. 촉매 설계 방법은 ㉡ 회귀 경로를 통하여 오류를 최소화 과정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체계로서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상이 되는 반응을 선정하고, 열역학적 검토와 경제성 평가를 거쳐 목표치를 설정한다. 이 단계에서 열역학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원하는 수준의 경제성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설계의 처음으로 되돌아간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반응물이 촉매 표면에 흡착되어 생성물로 전환되는 반응 경로 모델을 구상하며, 그 다음에 이 모델대로 반응의 진행을 쉽게 하는 활성 물질, 활성 물질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증진제, 그리고 반응에 적합한 촉매 형태를 유지시

키는 지지체를 선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에서 선정된 조합으로 촉매 시료를 제조한 후 실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촉매의 활성, 선택성, 내구성을 평가한다. 여기서 결과가 목표치에 미달하면 다시 촉매 조합을 선정하는 단계로 돌아가며, 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에도 설정된 경로 모델대로 반응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다시 경로 모델을 설정하는 단계로 회귀한다. 설정된 경로 모델에 따라 목표치에 도달하면 촉매 설계는 완료된다.

미래 사회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 보존을 최우선시하여, 기존 공정을 개선하거나 환경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촉매의 개발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기존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응 단계는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원하는 물질을 생산하고, 낮은 온도에서 선택적으로 빠르게 반응을 진행시킬 수 있는 새로운 촉매가 필요하게 된다. 촉매 설계 방법은 환경 및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의 돌을 만드는 체계적 접근법이다.

19.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 ① 반응이 열역학적으로 가능하도록 돕는 촉매는 원하는 수준의 경제성에 도달하게 한다.
- ② 설계를 통한 촉매 개발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③ 전통적인 촉매 개발은 시각적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 ④ 전통적인 촉매 개발 과정에서는 개발 완료 시점을 예측할 수 있다.
- ⑤ 촉매 설계법의 회귀 경로를 따라가면 촉매를 재사용할 수 있다.

20. ㉠과 가장 가까운 사례는?

- ① 영수는 사물함의 비밀 번호를 잊어버려 고민하다가 여러 번호를 입력해 보았다. 그 결과 운 좋게 세 번 만에 사물함을 열었다.
- ② 영희는 중학생 때 「데미안」을 반복해서 읽었으나 잘 이해되지 않았다. 그 후 고등학생이 되어 다시 읽어 보니 내용이 쉽게 이해되었다.
- ③ 민수는 좋은 시어를 찾기 위해 사전을 뒤졌으나 적절한 시어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설을 읽다가 멋진 시어가 떠올랐다.
- ④ 유진은 방송국 홈페이지에 열심히 글을 올리다가 우연히 경품 응모에 당첨되었다. 그 후 유진은 계속해서 글을 올렸고, 경품을 타는 횟수가 더욱 늘어났다.
- ⑤ 철수는 수영 실력이 늘지 않아 코치의 조언에 따라 기본 자세를 고쳐 기록을 향상시켰다. 그 후 기록이 정체되어 다시 코치의 조언을 받아 터하는 법을 고쳐 기록을 더욱 향상시켰다.

21. <보기>는 촉매 설계법에 따라 촉매를 개발한 사례의 일부이다. 위 글로 보아 <보기>에 이어질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M사는 염화수소로부터 염소를 생산하는 공정에 사용될 새로운 촉매를 설계하려고 한다. 먼저 열역학적 검토와 경제성 평가를 거쳤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형 규모의 공장의 경우, 조업 온도 350°C에서 촉매 1kg이 시간당 400L의 염화수소를 처리하고 염화수소의 전환율이 70%가 되도록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다음은 관련 사항을 검토하여 두 개의 반응식으로 구성된 반응 경로 모델을 설정하고, 설정된 경로대로 반응을 진행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촉매 조합인 '크롬 조합-1'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은 선정된 촉매 조합의 평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분석해보니 염화수소의 전환율이 65%였다.

- ① 설정된 반응 경로 모델대로 진행되었는지 점검한다.
- ② 선정된 촉매 조합을 다른 촉매 조합으로 변경한다.
- ③ 촉매의 시간당 염화수소 처리량 목표치를 낮춘다.
- ④ 개발 목표 전환율을 하향 조정한다.
- ⑤ 다른 반응 경로 모델을 구상한다.

22. ㉠와 관련하여 '돕다'가 쓰인 다양한 예문을 찾아보았다. 각 예문에 쓰인 '돕다'의 유의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문	유의어
①	수재 의견금을 내서 수재민을 <u>도왔다</u> .	구명하다
②	임금님을 <u>도와</u>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보필하다
③	친구가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u>도왔다</u> .	조력하다
④	이 약은 원기를 <u>돕는</u> 효과가 매우 크다.	증진하다
⑤	두 회사는 그 사업을 위해 회사끼리 <u>돕기</u> 로 했다.	제휴하다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전에 당(唐) 태종이 방현령에게 이르기를 “선대(先代)의 사관(史官)이 기록한 것을 임금에게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니, 방현령이 대답하기를 “사관은 거짓으로 칭찬하지 않으며 나쁜 점을 숨기지 않으니, 임금이 이를 보면 반드시 노하게 될 것이므로 감히 임금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태종은 방현령에게 명하여 순서대로 편찬하여 올리게 했습니다. 방현령은 선대의 실록을 편찬하여 올렸지만, 말에 은근히 숨긴 것이 많았습니다. 어질고 슬기로웠던 태종으로서는 마땅히 바른대로 쓰여 있더라도 싫어할 점이 없었을 것인데, 방현령 같은 일세의 현명한 재상도 오히려 사실을 숨기고 피하여 감히 바른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혹시 태종에게 ㉠ 미치지도 못하는 후세의 군주가 자기 시대의 역사를 보고자 한다면, 아첨하는 신하가 어찌 방현령 처럼 사실을 숨기고 피하는 것에 그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하시는 일마다 삼대(三代)*를 본받으시면서도, 근래에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보고자 하시니, 저희들이 명령을 듣고는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간절히 생각하옵건대, 당 태종도 그 시대의 역사를 보고 후세의 비난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태종이 덕망을 잃은 일이니 어찌 전하께서 마땅히 본받을 일이겠습니까?

을해년에 전하께서 이를 열람하고자 하셨다가 그 명을 거두셨으니, 한 시대의 법을 세움이 엄격하셨고 만세의 공론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러한 명령이 있게 되니,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만, ㉡ 그 옳고 그름을 보고서 교훈으로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 거짓인지 참인지를 살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진하게 기록되었는지 조사해 그것을 빠짐없이 쓰도록 하시려는 것입니까?

(중략)

삼가 생각하옵건대, 창업한 군주는 자손들의 모범입니다. 전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열람하시면 대를 이은 임금이 이를 구실로 삼아 반드시, “우리 아버님께서 하신 일이며 우리 할아버님께서 하신 일이라.” 하면서 다시 서로 이어받아 당연한 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관이 감히 사실대로 기록하는 뜻을 잡겠습니까? 사관이 사실대로 기록하는 필법이 없어져 아름다운 일과 나쁜 일을 보여서 권장하고 경계하는 뜻이 어둡게 된다면, 한 시대의 임금과 신하가 무엇을 꺼리고 두려워해서 자신을 반성하겠습니까? 오늘날 역사를 열람하는 일은 자손들에게 좋은 계책을 전해 주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 『태조실록』 -

* 삼대: 고대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23. <보기>의 ㉠~㉤ 중,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보 기>

을해년(태조 4년), ㉠ 태조는 당 태종의 고사를 들어 즉위 이후의 ㉡ 역사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을 내렸다. 신하들이 반대하자 태조는 ㉢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그 후 태조는 ㉣ 또다시 역사 기록을 보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 신하들이 또 반대했지만, 태조는 기어이 제출하게 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4. 위 글의 글쓴이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언급해 결단을 촉구한다.
- ② 역사적 인물의 잘못된 선례를 들어 경각심을 일깨운다.
- ③ 시대의 변화를 상기시켜 그 흐름을 따를 것을 촉구한다.
- ④ 상대방의 특별한 지위를 부각시켜 사안의 중대성을 환기한다.
- ⑤ 상대방의 지난 행위의 긍정적인 면을 높이 평가하며 일관성을 요구한다.

25. ㉠, ㉡는 임금이 역사 기록을 보려는 이유를 글쓴이가 추정하는 것이다. ㉠, ㉡에 대한 글쓴이의 반론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배열한 것은?

<보 기>

㉠. 역사를 기록한 당사자와 역사에 서술된 대상자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관은 소문이나 억측, 터무니없는 일을 기록하여 후세의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 왕실과 조정, 중앙과 지방의 크고 작은 많은 사건을 가리지 않고 거두어 모아 기록했습니다.

㉣. 옛날의 성현이 남긴 기록만 보더라도 치란(治亂)·홍망의 자취를 돌아보고 반성하기에 충분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① | ㄱ | ㄴ | ② | ㄱ | ㄷ |
| ③ | ㄷ | ㄹ | ④ | ㄹ | ㄴ |
| ⑤ | ㄹ | ㄷ | | | |

26.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산업 시설에도 황사 피해가 미친다.
- ② 광고는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③ 백성들의 원성이 왕에게까지 미치지 못했다.
- ④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미쳤다.
- ⑤ 그녀의 숨씨는 아직 어머니 숨씨에 미치지 못했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유 한림은 두(杜) 부인 모자를 집으로 초청했다. 큰 잔치를 열어 전별하려는 것이었다. 두 부인은 그 자리에 사씨가 없는 것을 보고는 ㉠ 온종일 언짢은 표정을 짓고 있다가 마침내 한림에게 말했다.

“오라버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로 조카님을 의지해 지내 왔네. 이제 만 리 먼 작별을 앞두고 내가 한 마디 부탁을 하려고 하네.”

유 한림은 무릎을 꿇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사씨 문제라네. 사씨는 오라버니께서 아끼던 사람으로 성품이 본래 근실하고 신중하네. 그에게 죄과가 없으리라는 것은 백 번이라도 보장할 수 있지. 내가 떠난 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그대로 믿지 말게. 설혹 그의 잘못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도 반드시 내게 편지를 보내 의논해 주게. ㉡ 부디 가볍게 처리하지 말게나.”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두 부인이 이어서 시비를 돌아보며 물었다.

“부인은 어디 계시나? 내 직접 가 보아야겠다.”

시비는 두 부인을 모시고 사씨가 있는 곳으로 갔다. 사씨는 누추한 방에 거적을 깔고 있어 보기에다 처참했다. 나무 비녀와 베치마에 다복쭉처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는데, ㉢ 몸은 초췌하여 의복도 이기지 못할 듯했다.

사씨는 두 부인을 맞아 절을 올린 후 말했다.

“숙숙*께서 영귀하여 멀리 떠나시지요. 그러나 돌아보건대 저는 상복을 입은 사람이고 또한 씻을 수 없는 죄명을 지고 있어, 감히 뜰에 나가 경하 드리며 떠나시는 길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집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지만 또한 나가서 뵈올 수가 없었습니다. ㉣ 이생에서는 다시 존안을 대할 날이 없을 듯하여 무궁한 한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부인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왕림하셨습니다.”

“오라버니께서 임종하실 때 한림을 내게 부탁하셨지.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네. 내가 조카를 잘 인도하지 못한 탓에, 자네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어. 모두 내 허물일세. 그런데 ㉤ 내가 몇 해 전에 자네에게 했던 말을 혹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가?”

사씨는 다시 절을 하고 대답했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찌 잊을 날이 있겠습니까? 제가 눈을 있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어찌 감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두 부인이 떠난 뒤, 사씨는 또다시 교씨의 흥계에 빠진다. 교씨는 울면서 사씨를 모함한다.

마침내 한림은 화를 벌칙 냈다.

“투부*가 처음에 저주를 했을 때, 나는 부부의 정의를 생각

하여 차마 적발할 수가 없었지. 그 후 신성현에서 더러운 행실을 한 단서가 이미 드러났을 때에도 죄를 묻지 않았어. 지금 또 이렇게 세상에 보기 드문 흉악한 짓을 하다니……. 이 사람을 집안에 그대로 둔다면 조상께서 제사를 흠향하지 않으시고, 자손도 완전히 끊어질 거야.”

한림은 교씨를 위로하였다.

“오늘은 이미 저물었네. 날이 밝으면 일가들을 모아 사당에 고한 후에 투부를 내칠 것이네. 그리고 자네를 부인으로 삼을 것이야. 쓸데없이 슬퍼하지 말게. 꽃 같은 얼굴만 상하겠네.”

교씨는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다.

“그같이 조치하시다니……. 이제 첩의 원한이 거의 풀렸습니까. 하지만 ㉦ 부인의 자리를 첩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한림은 즉시 일가들에게 통지하여 아침에 모두 사당 아래로 모이게 했다.

아아! 유 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만 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여러 시비들이 달려가 사씨에게 그 전말을 고하고 통곡하였다.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숙숙: 두 부인의 아들을 가리킴.

* 투부: 질투심이 많은 여자. 사씨를 가리킴.

2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③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 ④ 인물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다.
- ⑤ 사건이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씨가 곤경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사씨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되어 있다.
- ③ ㉢: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는 사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④ ㉣: 자신의 처지를 절망적으로 바라보는 사씨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 ⑤ ㉤: 잘못된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씨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9. 위 글로 보아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항상 자신의 말을 스스로 지키며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게. 언행이 일치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 ② 새로 들어온 사람을 잘 대해 주게. 그 사람이 우리 가문에 처음 들어와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잘 모를 것이네.
- ③ 사람이 어떤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네. 그러니 자네는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말고 자네의 말은 바 소임에만 충실하도록 하게.
- ④ 장부가 원한다 하더라도 만류할 줄 알아야 하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나. 사람을 잘 살펴보아야 하네.
- ⑤ 장부의 뜻에 순종해야만 집안이 화목하고 가문이 번성할 수 있네. 사사로이 자네의 감정을 앞세워 장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야.

30. 독자의 입장에서 ㉞를 비판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방약무인(傍若無人) ② 호가호위(狐假虎威)
- ③ 표리부동(表裏不同) ④ 감탄고토(甘呑苦吐)
- ⑤ 경거망동(輕舉妄動)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음절을 많이 활용한다. ‘이야기-기상대-대리점’으로 이어 가는 끝말잇기 게임이나 ‘불고기 백반’을 ‘불백’이라고 하는 것 등은 모두 음절을 바탕으로 한다. 음절은 시에서 운을 맞추거나 랩에서 리듬을 맞출 때에 활용되기도 한다.

사람의 말소리는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음소, 음절 등으로 분절하여 인식한다. 음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이웃한 자음과 모음의 개구도(開口度, 입의 벌림 정도)를 비교하는 소쉬르의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이 방법에 따라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누면, 폐쇄음(ㄱ, ㄷ, ㅂ 등)은 0도, 마찰음(ㅅ, ㅆ, ㅎ)과 파찰음(ㅈ, ㅊ, ㅊ)은 1도, 비음(ㅁ, ㄴ, ㅇ[ŋ])은 2도, 유음(ㄹ)은 3도, 고모음(ㅣ, ㅘ, ㅙ, ㅚ)은 4도, 중모음(ㅓ, ㅕ, ㅖ, ㅗ, ㅛ)은 5도, 저모음(ㅓ, ㅕ)은 6도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하여, 뒤쪽이 크면 ‘<’로, 뒤쪽이 작으면 ‘>’로 부등호를 매겨 나가되, 마지막 말소리는 ‘>’로 닫는다. ‘동대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말소리	ㄷ	ㅓ	ㅇ	ㅊ	ㅁ	ㅌ	ㄴ
개구도	0	5	2	0	6	2	4
부등호	<	>	>	<	>	<	>

이러한 부등호 배열에서 ‘><’ 모양을 갖는 두 부등호 사이가 음절 경계가 된다. 이 경계를 중심으로 음절을 나누면, ‘ㄷㅇㅇㅊㅁㅌㄴ’이 ‘동-대-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절에서 개구도가 가장 큰 말소리가 음절의 핵이 된다. 국

어에서 음절의 핵은 언제나 모음이고, 그 앞과 뒤에 자음이 하나씩 올 수도 있으므로, 국어의 음절 구조는 ‘(자음) + 모음 + (자음)’이 된다. 이러한 음절 구조에서 각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은 제한되기도 한다. 음절 초에는 ‘ㅇ[ŋ]’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이 올 수 있지만, 음절 말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ŋ]’ 7개의 자음밖에 올 수 없다. 그리고 음절 초 자음이 ‘ㅈ, ㅊ, ㅊ’이면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가 오지 못한다.

국어의 음절에는 모음이 하나씩 있으므로 모음의 수가 곧 음절의 수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모든 언어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와 같이 [n]이나 [l] 같은 자음이 음절의 핵이 되는 언어도 있기 때문이다. 음절 구조가 다른 두 언어가 접촉하면 음절의 수나 구조에 변동이 오기도 한다. 영어에서 1음절인 [sprɪŋ]이 국어에 오면 3음절의 ‘스프링’이 된다. 이런 점에서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의 구조는 해당 언어의 발음을 지배하는 기본 골격이라 할 만하다.

3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음이 변화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국어 음절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특정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말소리가 음절로 나누어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음절이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국어의 음절 구조를 분석하여 위치에 따라 올 수 있는 요소가 제한됨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언어 접촉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언어에 따라 음절 구조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국어의 음절을 정의할 때, ㄱ~ㄹ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보 기>

음절은 개구도가 (ㄱ) 모음을 핵으로, 그 앞과 뒤에 개구도가 (ㄴ) 자음이 각각 (ㄷ)까지 올 수 있는 (ㄹ)의 최소 단위이다.

- | | | | | |
|---|----|----|----|----|
| | ㄱ | ㄴ | ㄷ | ㄹ |
| ① | 큰 | 작은 | 하나 | 발음 |
| ② | 큰 | 큰 | 둘 | 글자 |
| ③ | 큰 | 작은 | 하나 | 글자 |
| ④ | 작은 | 큰 | 하나 | 발음 |
| ⑤ | 작은 | 큰 | 둘 | 글자 |

33. 위 글로 보아 부등호 배열이 ‘<><>>’의 모양을 가지는 것은?

- ① 다수 ② 가족 ③ 승부 ④ 성질 ⑤ 우정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세부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기까지 생리학 분야의 절대적 권위는 2세기 경 그리스 의학을 집대성한 갈레노스에게 있었다. 갈레노스에 따르면, 정맥피는 간에서 생성되어 정맥을 타고 온몸으로 영양분을 전달하면서 소모된다. 정맥피 중 일부는 심실 벽인 격막의 구멍을 통과하여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이동한 후, 거기에서 공기의 통로인 폐정맥을 통해 폐에서 유입된 공기와 만나 동맥피가 된다. 그 다음에 동맥피는 동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생기를 전해 주면서 소모된다. 이 이론은 피의 전달 경로에 대한 근본적인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갈레노스의 포괄적인 생리학 체계의 일부로서 권위 있게 받아들여졌다. 중세를 거치면서 인체 해부가 가능했지만, 그러한 오류들은 고대의 권위를 추종하는 학문 풍토 때문에 시정되지 않았다.

16세기에 이르러 베살리우스는 해부를 통해 격막에 구멍이 없으며, 폐정맥이 공기가 아닌 피의 통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후 심장에서 나간 피가 폐를 통과한 후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폐순환이 발견되자 갈레노스의 피의 소모 이론은 도전에 직면했다. 그러나 당시의 의학자들은 갈레노스의 이론에 얽매어 있었으므로 격막 구멍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문제, 즉 우심실에서 좌심실로 피가 옮겨 갈 수 없는 문제를 폐순환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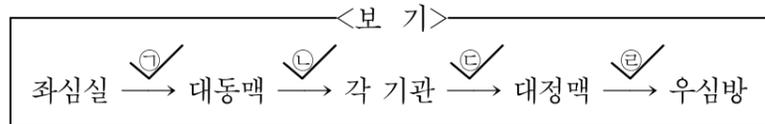
이러한 판도를 바꾼 사람은 하비였다. 그는 생리학에 근대적인 정량적 방법을 도입했다. 그는 심장의 용적을 측정하여 심장이 밀어내는 피의 양을 추정했다. 그 결과,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피의 양은 섭취되는 음식물의 양보다 훨씬 많았다. 먹은 음식물보다 더 많은 양의 피가 만들어질 수 없으므로 하비는 피가 순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하비는 끈으로 자신의 팔을 묶어 동맥과 정맥을 함께 압박하였다. 피의 흐름이 멈추자 피가 통하지 않는 손은 차가워졌다. 동맥을 차단했던 끈을 약간 늦추어 동맥피만 흐르게 해 주자 손은 이내 생기를 회복했고, 잠시 후 여전히 끈에 압박되어 있던 정맥의 말단 쪽 혈관이 부풀어 올랐다. 끈을 마저 풀어 주자 부풀어 올랐던 정맥은 이내 가라앉았다. 이로써 동맥으로 나갔던 피가 손을 돌아 정맥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이 실험을 근거로 하비는 1628년에 ‘좌심실 → 대동맥 → 각 기관 → 대정맥 → 우심방 → 우심실 → 폐동맥 → 폐 → 폐정맥 → 좌심방 → 좌심실’로 이어지는 피의 순환 경로를 제시했다. 반대자들은 해부를 통해 동맥과 정맥의 말단을 연결하는 통로를 찾을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얼마 후, 말피기가 새로 발명된 현미경으로 모세혈관을 발견하면서 **피의 순환 이론**은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폐와 그 밖의 기관들을 피가 따로 순환해야 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인체 기능을 설명하는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이 시작되었다.

34. 위 글로 보아 ‘피의 순환 이론’의 성립이나 수용에 기여하지 않은 것은?

- ① 새로운 생리학의 구축 ② 과학적 발견들과의 부합
- ③ 정량적 사고방식의 채택 ④ 새로운 관찰 도구의 도입
- ⑤ 실험적 방법의 적극적 활용

35. <보기>는 ‘하비’가 제시한 피의 순환 경로의 일부이다. ‘하비’가 끈 실험에서 차단했던 위치를 바르게 지적한 것은? [1점]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36. <보기>의 관점에 따라 위 글의 사례를 해석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성공적인 과학 이론은 ‘패러다임’이 되어 후속하는 과학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학자들은 패러다임에서 연구의 방법, 연구 주제 등을 발견한다. 이러한 ‘정상 과학’ 활동에서 때때로 기존의 패러다임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과학적 발견인 ‘변칙 사례’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칙 사례들이 패러다임을 당장에 ‘무효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변칙 사례가 누적되면서 위기가 도래한다. 이때 새로운 과학 이론이 등장하여 기존의 패러다임과 경쟁을 벌인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새로운 이론이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데, 이것이 ‘과학 혁명’이다.

- ① 갈레노스의 이론은 오랫동안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이므로 ‘패러다임’이었겠군.
- ② 갈레노스에 대한 강력한 추종이 있었던 중세의 생리학은 ‘정상 과학’이었겠군.
- ③ 폐정맥에서 피가 발견된 것은 갈레노스의 이론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변칙 사례’에 속하겠군.
- ④ 폐순환의 발견은 경험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갈레노스의 이론을 ‘무효화’하지 못했겠군.
- ⑤ 하비의 순환 이론이 갈레노스의 이론을 대신하여 수용된 것이 ‘과학 혁명’이겠군.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그물을 메고 풀이 죽은 연철이 들어온다. ㉠ 네 사람, 우르르 물러가 연철을 에워싼다.

곰치 그래 얼마나 올랐어?

도삼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을 해 줘사 쓸 것 아니라고! 자네 기다리다가 지쳤어! (기대에 찬 얼굴로) 어서 어서 말이나 해 보게!

성삼 석 장은 올랐제?

구포택 저 사람 무담씨 장난치고 싶음께는 일부러 쌍다구 딱 찡그리고 말 앓는 거 봐! 그라제? (수선스럽게 웃어댄다.)

연철 (㉠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에 가 앉으며 침통하게) 놀려라우? 맘이 기빠사 놀릴 맘도 생기지라우!

곰치 (영문을 몰라) 른 소리여? (㉡ 외락 연철의 팔을 붙들고) 아니, 른 소리여? 엉?

연철 (처절하게) 다, 다 뺏겼오! 아무 것도 없이 다 뺏겼오!

일동 (비명처럼) 못이라고?

곰치 (미친 사람처럼) 뺏기다니? 뺏기다니? 못을 누구한테 뺏겼단 말이여? 엉?

연철 (처절하게) 빛에 싹 쨌혔지라우! 그것도 빛은 이만 원이나 남고……. (절규하듯) 른 도리로 막는단 말이요?

성삼 (주먹을 불끈 쥐곤) 죽일 놈!

도삼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버리며) 아아!

구포택 (손바닥을 철썩 철썩 때려 가며) 그렇게 됐어? 뺏겼어? (신음처럼) 허어!

연철 (사립문 쪽을 가리키며) 쉬잇!

임제순 어색한 미소를 흘리며 들어온다. 그 뒤로 야릇한 표정의 범쇠 따라 들어와선 눈길을 땅에 박은 채, 뒷짐을 쥐고 마당을 서성댄다. 긴장해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는 네 사람.

임제순 (능글맞게 웃음을 흘리며) 곰치! 오늘 잘 했어! 자네가 제일 많이 했어! 거 참 멋있거등!

곰치 (건성으로) 예에! 예에!

임제순 부서 때도 몇 십 년 만이지만 부서 크기도 처음이여! 죄다 허벅다리 같은 놈들이니……. (갑자기 불만스러운 얼굴을 해 가지곤) 그라제만 나는 손해여! 이익이 없그등! 천상 널린 돈 거둔 것뿐잉께……. 그나마도 일부분만 거뒀으니……. (속상하다는 듯이) 진장칠 놈의 것,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줘서 이자만 키웠어도……. 예잇! 쫓쫓!

범쇠 (여전히 마당을 서성대며) 아얌!

임제순 곰치!

곰치 (뉘 빼고 서선, 헛소리처럼) 예에! 예에!

(중략)

임제순 ……자네 섭섭할는지 모르겠네만은……. (강경하게) 남은 이만 원 청산할 때까지 내일부터 배를 묶겠네! 묶겠어!

곰치 (기겁할 듯 놀라) 예에? 아니 배, 배를 묶어라우?

성삼·연철·도삼 배를 묶다니?

구포택 (떨쩍 뛰며) 왔다! 른 말씀이싱게라우? 아니, 해필이면 이럴 때 배를 묶으라우? 예에?

임제순 (단호하게) 나는 두말 앓는 사람이여!

곰치 (애걸조로)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임제순 (손을 저으며) 더 말 말어! (㉢ 몇 걸음 걸어 나가며) 배가

없어서 고기를 못 잡어! 배 빌려 달란 사람이 밀린단 말이여! 곰치 (따라가며) 영감님! 사나흘 안으로 빚 갚지랍너! 요참 물만 안 놓치면 되고 말고라우! 제발 배는 풀어 주씨요! 제발! 임제순 (㉣ 곰치를 떠밀며) 안 돼! 안 된다면!

- 천승세, 「만선」 -

3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간결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시키고 있다.
- ② 현장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인물의 직업과 공간적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⑤ 지시문을 많이 사용하여 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38. <보기>는 ‘연철’과 관련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연철은 ㉠ 무대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을 등장인물과 관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 연철의 첫 대사는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또한 연철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 연철은 전달해야 할 내용을 부분적인 정보로 분할하여 점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누가 빼앗아 갔느냐는 물음에는 끝까지 명시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 연철은 그 인물이 등장하는 시점을 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 줌으로써, 빼앗아 간 자의 정체를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이후에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태를 관망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9. 연출가가 <보기>와 같이 ㉠~㉤을 해석한 후 연기를 지시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배우의 움직임은 상대와 접촉하려는 욕망이나 상대를 회피하려는 욕망을 표현합니다. 움직임은 사람의 다양한 감정, 심리, 태도 등을 드러내는데, ㉠, ㉡, ㉢, ㉣은 접촉하려는 욕망으로, ㉤은 회피하려는 욕망으로 해석해 봅시다.

- ① ㉠: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 ② ㉡: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착잡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 ③ ㉢: 상대를 질책하는 태도를 표현해야 합니다.
- ④ ㉣: 상대를 초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 ⑤ ㉤: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척해야 합니다.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가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불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위 글의 글쓴이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 ② 자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 ③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④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 ⑤ 공공 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45. ㉠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 ① 민간 투자도 공익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③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는 동등한 투자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46. 위 글로 보아 <보기>의 ㉡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 [3점]

<보 기>

한 개발 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놀이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그래서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②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③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연습이 끝나고 막걸리 집으로 옮겨 갔을 때도, 아이들은 민 노인을 에워싸고 역시 성규 할아버지의 북소리는, 우리 같은 줄개들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명인의 경지라고 추어 올렸다. 그것이 입에 발린 칭찬일지라도, 민 노인으로서는 듣기 싫지 않았다. 잊어버렸던 세월을 되일으켜 주는 말이기도 했다.

“애들아, 꺼져 가는 떠돌이 북쟁이 어지럽다.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아라.”

민 노인의 검사에도 아이들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아닙니다. 벌써 품이 다른걸요.”

“맞아요. ㉠ 우리가 칠 때는 죽어 있던 북소리가, 팽과리보다 더 크게 들리더라니까요.”

“성규, 이번에 참 옥보았다.”

난데없이 성규의 노력을 평가하는 녀석도 있었다. 민 노인은 뜻밖의 장소에서 의외의 술친구들과 어울린 자신의 마음이, 외견과는 달리 꽤 편안하다는 느낌도 곱씹었다. 옛날에는 없었던 노인과 젊은이들의 이런 식 담합이, 어디에 연유하고 있는가를 딱히 짚어 볼 수는 없었으되.

두어 번의 연습에 더 참가한 뒤, 본 공연이 열리던 날 새벽에 민 노인은 성규에게 일렀다.

“아무리 단역이라고는 해도, 아무 옷이나 걸치고는 못 나간다. ㉡ 모시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는 북채를 잡을 수 없어.”

“물론이지요. 할아버지 옷장에서 꺼내 놓으세요. 제가 따로 가지고 갈게요.”

“두 시부터라고 했지?”

“네.”

“이따 만나자.”

일찍 점심을 먹고, 어느 날의 걸음걸이로 집을 나선 민 노인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설레임으로 흔들렸다. 아직은 눈치를 채지 못한 아들 내외에 대한 심리적 부담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 때문이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춤판에 영감쟁이 하나가 낚이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어색하기도 하고, ㉢ 모처럼의 북 가락이 그런 모양으로밖에는 선보일 수 없다는 데 대한, 옅은 적막감도 씻어 내기 힘들었다. 그러나 젊은 훈김들이 뿔어내는 학교 마당에 서자 그런 머뭇거림은 가당찮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시간이 되어 옷을 갈아입고 아이들 속에 섞여 원진(圓陣)을 이루고 있는 구경꾼들을 대하자, 그런 생각들은 어디론지 녹아 내렸다. ㉣ 그 구경꾼들의 눈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도 자신이 거쳐 온 어느 날의 한 대목으로 치면 그만이었다. 노장이 나오고 취발이가 등장하는 가 하면, 목중들이 춤을 추며 걸쭉한 음담패설 등을 쏟아 놓을 때마다, 관중들은 까르르 웃었다. 민 노인의 북은 요긴한 대목에서 뚝뚝 울렸다. 째지는 소리를 내는 팽과리며 장구에

과문혀 제값을 하지는 못해도, 민 노인에게는 전혀 패념할 일이 아니었다.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연 전에 마신 술기운도 가세하여, 탈바가지들의 손끝과 발목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북소리는 툭 툭 꽃혔다. 그새 입에서는 얼씨구! 소리도 적시에 흘러나왔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 가락과 소리와, 그것을 전체적으로 휩싸는 달착지근한 장단에 자신을 내맡기고만 있었다.

그날 밤, 민 노인은 근래에 흔치 않은 노곤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춤판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과음한 까닭도 있을 것이었다. 더 많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이, 꿈도 없는 잠을 거쳐 상큼한 아침을 맞고 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흐릿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 저녁때가 되어, 외출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성규를 찾았고, 그가 안 보이자 민 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 예사로운 말씨와는 달리, 굳어 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늘이 짙 깔려 있었다. 금방 대답을 못하고 엉거주춤한 형세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는 민 노인의 면전에서, 송 여사의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북을 치셨다면서요.”

“그랬다. 잘못했니?”

우선은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힐문에 부아가 꾸역꾸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이 그 뒤에 일었다.

“아이들 노는 데 구경 가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개들과 같이 어울려서 북 치고 장구 치는 게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인가요?”

“하면 어때서. 성규가 지성으로 청하길래 응한 것뿐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 ㉦ 이번에도 내가 너들 체면 깎았냐.”

“아시니 다행이네요.”

송 여사는 후닥닥 문을 닫고 나갔다.

- 최일남, 「호르는 북」 -

47.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성격과 행위의 괴리를 보여 주어 인물이 처한 심리적 상황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48. 위 글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막걸리 집’은 ‘민 노인’이 신세대와 만나 인간적인 소통을 하는 공간이다.
- ② ‘춤판’은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유대감을 확인하는 공간이다.
- ③ ‘춤판’은 ‘구경꾼들’이 공연 내용에 반응하며 전통 예술을 향유하는 공간이다.
- ④ ‘춤판’은 ‘민 노인’이 신명 나게 북을 치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공간이다.
- ⑤ ‘집’은 ‘며느리’가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여 자신의 허영심을 억압하는 공간이다.

4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부담감을 떨치고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 ③ ㉢: 상황에 몰입하여 무아지경의 상태에 있다.
- ④ ㉣: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고 애쓰고 있다.

50. ㉠과 ㉡를 바탕으로 ‘민 노인’의 예술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 ① 예술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바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예술은 청중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통해서 성취되는 사회적 산물이다.
- ③ 예술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시대의 이상을 꿰뚫어 지켜야 한다.
- ④ 예술은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도 품위 있는 격식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
- ⑤ 예술은 예술가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성취되는 아름다움의 결정체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